

##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무용 분야) 3차 실연심의 회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무용 분야) 3차 실연심의
- 회의일시 : 2025년 4월 23일(수) ~ 4월 25일(금) 10:30~18:00
- 회의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개발원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성훈, 김예림, 문영, 성기숙, 오선명, 정혜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우수 창작 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올해의신작 무용분야 심의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무용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차 서류심의에서는 대상 68건 중 18건을 선정했으며, 2차 인터뷰 심의에서는 실연심의 대상 11건을 선정했습니다. 3차 실연심의에서는 이 11건 중 8건을 최종 선정작으로 결정했습니다. 1차, 2차 심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장르 안배를 고려하였으며, 이는 무용 현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감안한 결정이었습니다. 공연장은 신청자가 지원한 극장을 토대로 대극장 6편, 소극장 2편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3차에 걸친 심의 모두 창작목표와 주제, 그에 따른 구성안과 안무의도 등 '작품성'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었으며, 참여인력의 역량과 예산의 적절성, 최종 결과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술적 완성도, 그리고 장르의 고른 안배등을 주요사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무용예술의 본질적 표현도구인 신체의 실물로 이뤄지는 실연심의에서는 이전의 심의 기준에 더해 출연자의 기량 및 무대의 공연미학적 요소도 비중있게 평가되었습니다.

실연 심의에 참여한 11편의 작품은 무대미술과 조명 등 움직임 외적 요소를 최소화한 가운데 최대한 공정한 조건에서 각 20분간 실연을 선보이고, 15분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심의는 심의위원의 열띤 논의를 거쳐 개별채점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고 관객평가단의 평가를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등위를 정한 후 총 8편의 선정작을 결정했습니다. 예산 배정은 신청자들이 제출한 예산서를 토대로 배정하였습니다. 지원액 결정에 있어서 선정작의 계획된 무대 구현이 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 현실적 금액이 배정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했음을 밝힙니다.

심의 대상 대부분 최초 제출한 계획서에 충실했으나 일부 작품은 대본내용, 무대미술, 출연자에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심의에서는 주요제작진(안무자)의 변동이 없다는 조건 하에 최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경우 수용하여 심의했습니다.

실연심의 대상 11건 중 다수가 기후위기, 환경생태,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동시대 예술이 가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창작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연출적 접근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돋보였으며, 매체 간 경계를 넘나드는 형식적 실험이나 상징적 오브제를 활용한 무대 구성 등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꾀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으며, 안무 의도와 메시지의 맥락을 시각적으로 풀어가려는 시도가 인상 깊었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춤에 있어서 장르를 넘어서는 움직임 시도가 눈에 띄었는데, 발레와 한국무용 작품에서 현대무용, 실용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이 융합된 최근 창작경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장르의 고유성이 희석되고 컨템포러리 성향의 움직임으로 획일화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순 협업이 아닌 주제 의식과 움직임의 상호 관련성 탐구가 전제된 작업 및 독창적 안무감각 등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안무 구성에서 독창적 동작 탐구와 개발의 깊이가 다소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른 점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작품마다 고유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움직임이 보다 능동적이고 정교한 조형성을 지녔다면 주제와의 연결성이 더욱 공고해졌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수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출연자 사례비를 책정한 경우 적절하다고 평가되었으나 일부 과다 편성된 경우 또는 지나치게 낮은 사례비 편성 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선정된 8편의 작품이 최종 공연단계까지 안정적 창작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탄생되기를 바라며, 작품의 예술적 시도와 실험, 작가성의 구현뿐만 아니라 관객의 예술 향유에도 깊이 다가가는 작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무용 분야 심의위원 일동